



포르노그래피의 역사

이윤수 명동 이윤수 비뇨기과병원 원장

현 대에 들어와서 인류의 일상생활에 가장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일 것이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인터넷을 발전시킨 공로자 중에 하나가 바로 '포르노그래피'가 아닌가 한다. 인터넷이 보급될 당시, 떠도는 포르노물을 보고자 모니터 앞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인터넷 통신이 발전하게 된 것이다.

포르노그래피란 남성의 본능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다른 사람들의 성 행위를 바라보며 대리만족을 느끼게 한다. 사실 어떤 작품을 놓고 포르노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미술책이나 미술 전시회를 보면 수많은 누드화를 예술품으로 만나게 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성의 벗은 모습을 보면서 춘화도라며 경시한다.

포르노인지 예술품인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본다. 단지 시대적 상황이나 정서가 기준이 되며 이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면 포르노그라피라는 이름이 붙여져 왔다. 따라서 당국의 검열기준 또한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동될 수 밖에 없었다. 지금은 복권된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사라'를 보면 시각에 따라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수 있다.

현재도 누드사진이나 그림을 볼 때 외설이냐의 기준은 외성기에 음모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한다. 음모가 있다면 외설이요, 음모가 없다면 예술작품으로 보고 있다. 이런 기준은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에 생겨났다고 한다. 당시에는 도덕적 기준이 하도 엄격하여 성에 관해 외부로 표현되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막았다. 따라서 미술품에는 에로틱한 장면을 표현한 작품도 많았으나 음모를 없앴으로써 포르노그라피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포르노그라피가 과연 사람에게 얼마나 유해한 것일까? 미국에서는 한동안 포르노그라피가 사회적으로 유해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다. 1968년 '외설과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른다. 조사 결과 성에 대한 흥미는 당연한 것으로 건강에도 이로우나 대부분의 사람이 성에 대해 솔직하지 못한데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그 이후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단속 법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포르노그라피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과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성적 반응을 가져오는 것일까? 심리적 영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두에게 똑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남자의 23~77%, 여자의 8~66%만이 성적 흥분을 보였다고 한다. 자극효과와 지속시간도 잠깐 동안이었으며 반응 또한 억제할 수 있었다. 포르노그라피를 매일 본다면 흥미는 점차 떨어지고 1주일 후에는 싫증이 나고 3주일 후에는 더 이상 보고 싶어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였다.

포르노그라피가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의외의 결과가 있었다. 미국의 성범죄자 중에는 오히려 10대 때 포르노그라피에 접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접했던 사람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다.

현대에 들어와서 포르노그라피는 상업적으로 이용되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뭔가를 구매하게 만드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본 병원에서는 최근 성기능 장애나 부부갈등이 있는 사람들에게 경우에 따라 포르노그라피를 권하기도 한다.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에 대한 억압된 감정을 풀고 자연스럽게 성적 갈등을 풀어보고자 함이다.

그러나 일부 남성들 가운데는 포르노그라피에 빠져 들어가 거기서 나오는 변태 장면을 훑내내 보고자 시도하다가 파트너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한다. 너무 앞서가다가 상대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좌초하기도 한다. 거기에 나오는 남성배우들의 성기를 보면서 자신의 것도 크게 만들고자 성기확대수술을 받기도 한다. 물론 성기가 작아서 남들과 공중목욕탕에 가기 어려울 정도라면 성기확대수술을 받아서라도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 본 병원에서 성기확대수술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하고 발표하게 된 것도 성기가 남보다 작아서 고민하던 남성들을 위해서였다. 포르노그라피가 현대인의 성생활과 성의식을 바꾸어 놓은 것은 사실이다. ㉞